

2017년 12월 22일, 표선면 토산2리 토산2리노인복지회관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
제보자1: 김성현(남, 1934년생, 표선면 토산2리)

제보자2: 고광시(남, 1939년생, 표선면 토산2리)

- 줄거리: 어떤 사람이 도깨빗불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메밀밭 이었다고 한다.

[제보자1] 살당 보난 어느 날은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길에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면 집에 데려다 주고 강 보면 그 여자 제삿날이라는 말도 있어.

도체비 귀신이라고 헤가지고 예전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가 거리가 멀어서 으슥한 곳이 많아서. 도체빗불이 혼나 두 개가 아니고 막 별처럼 막 다닌덴. 사람이 다니면 막 희롱한다고 하더라고. 사람을 막 던져 불언.

[조사자] 어디로 던져 불어마씀?

[제보자1] 사람을 던져불언 메밀밧으로.

[제보자2] 도체빗불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당 보난 메밀밧이라.

[조사자] 도체비가 메밀밧을 좋아하는구나예.

[제보자2] 메밀밧이 하얗잖아. 밤에도 밝으니까 그런거 닮아.

[제보자1] 옛날에는 도체비한테 훌려서 다니다 보믄 사람이 낭밧이나 가시덩굴에 들어가는 말들은 많아. 벨 말이 다 잇어. 옷도 다 헤어지고 헌 이야기는 많아.

- 핵심어: 메밀밧(메밀밭), 도체빗불(도깨빗불), 도체비(도깨비), 귀신, 밤, 낭밧(나무밭), 가시덩굴